

제 55 호

대립 제 3 주일

1973. 12.16

숲 정 이

발행인	김 영 일
인쇄인	함 승 천
주 간	조 성 호
편 집	한 상 갑

[강 론]



성 탄 준비

범 석 규 신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루가 3, 10)

이 말은 요한이 구세주를 맞이할 준비를 하도록 강력하게 말씀하셨을 때에 군중이 요한에게 묻기한 말입니다. 이 물음에 요한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셨습니다.

“속옷 두벌을 가진 사람은 한 벌을 없는 사람에게 주고 먹을 것이 있는 사람도 이와같이 남과 나누어 먹어야 합니다. (루가 3, 11)하고 말씀하시고 또한 세리들 에게도 “정한대로만 받고 그 이상은 받아내지 마시오.” (루가 3, 12)하고 일러주었고 군인들에게도 “협박을 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남의 물건을 착취하지 말고, 자기가 받은 봉급으로 만족하시오.” (루가 3, 14)하고 부탁하셨습니다.

요한세자의 이상과 같은 부탁의 말씀으로 보아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고 찾아오실 것인가는 쉽게 구별이 됩니다.

성탄을 앞두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지나치게 인색하지 않았는가? 불쌍한 이웃을 보고도 못본 체 하지는 않았는가? 반드시 물질적인 인색 뿐 아니라 시간적, 인색, 육체적 노력의 인색, 남을 관용하는때 인색, 부드러운 말 한마디 하기를 싫어하는 인색 등, 남을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도와주지 않았다면 좀 후하게 도와 줍시다.

그리고 남에게 권리를 가지고 명령하고, 임의로 지시할 수 있는 신분에는 있는 사람이라면 다시 한번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그 권한은 하느님께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권리 남용을 하지 말고, 수하 사람이라도 그들의 인격을 존중하여 부드럽게 지시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장사를 하시는 분은 부정한 이익을 탐내지 말고 정당한 이익만을 남기고, 속임수를 써서 부당한 이익을 찾지 말아야겠습니다.

적당한 보수로 약속이 되어 있는 봉급을 받는 분이면 부정한 뒷거래로 부정을 일삼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세자의 부탁의 말씀을 잊지말고 선량한 마음의 자세로 성탄을 준비하는 이의 마음에는 주님이 항상 즐겁게 임하실 것입니다. 아멘

(전동천주교회 주임신부)

이주일의 미사

□입당송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왔으니, 주님과 함께 항상 기뻐하라.

□제1독서 (소포3; 14-18, 경향잡지 12월호P.)

야훼께서 너의 찬미를 기뻐하시리라.

□찬계송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너희 가운데 위대하시니, 기뻐하며 찬미하여라.

야훼님 날 구하시니 신뢰하며 겁내지 않으리라. 야훼님 나의 힘, 내 구세, 내 구원이시로다. 너희는 기뻐하며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길으라. ◎

□제2독서 (필립비 4; 4-7, 성서 P454)

주님이 가까이 오셨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주의 성신이 내 위에 계시며,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보내셨도다. 알렐루야.

□복음 (루가 3; 10-18 P. 130)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오리까?

□신자들의 기도

1. 주여, 당신의 내림을 기다리는 우리들로 하여금 세례자 요한의 소리에 귀를 막지 않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2. 주여, 우리를 인도하사 속옷 두벌을 가진 사람은 한벌을 없는 사람에게 주고, 먹을 것이 있는 사람도 이와 같이 남과 나누어 먹어야 함이 우리들의 의무임을 알게 하소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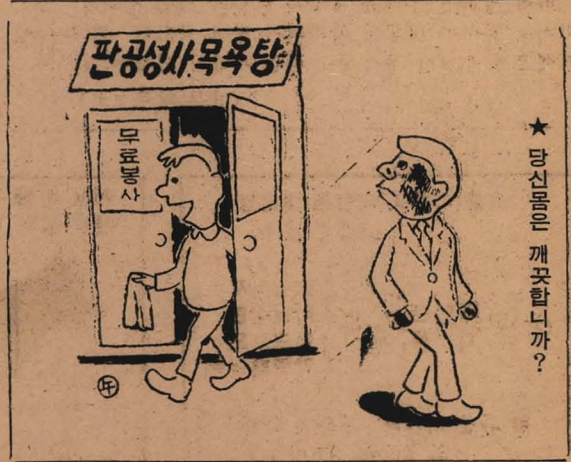
3. 주여, 우리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정의와 진리를 위한 소리에 외면하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정의의 투사들에게 더욱 용기를 북돋아 주소서.

+주여, 우리를 당신의 도구로 쓰시어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대립 감사송 이나 2

□영성체송 소심한 자들아, 우리 천주 몸소 모시어 우리를 구원하시리니, 용기를 내어 무서워 하지 말라.

* 숲 정 이 산책 *



싸워서라도

김 힐라리아



대중에 속한 사람이란 언제나 “남들은 어떻게 사나?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하는 남들 위주의 일념만으로 사는 사람을 말한다. 따라서, 그런 사람은 대다수 사람들이 하는데도 나도 따라하면 그만이다 하는, 안일하고 부동적인 인생관 밖에는 가질수 없게 된다. 심지어는 부정과 허영인 줄 알면서도 “남들 대부분이 하고 있는 일이니까 나도 따라 간다”하는 식의 생활 태도를 아무런 부끄럼도 없이 계속하는 사람들이다. 그러한 사람들은 삶의 목적을 자신의 세계에 두고 사는 사람이라 하겠다.

원래 대중이라는 것은 어처구니 없으리만큼 변덕스럽고, 또 질투하며, 시기하고 헐뜯기를 좋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변덕스런 대중의 비위만을 맞추다가는 결국은 그 대중에게도 버림받아 무엇을 위하여, 살아왔는지 알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만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 나름의 삶의 목적을 세우고 자기의 세계를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사람을 나는 개인에 속한 사람이라고 불러본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자기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어서 존재하는 것이다.

한 포기의 풀이나 한 마리의 새일지라도 자기대로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살고 있는 것이다. 꼭 존재해야 할 가치도 없는 것이라면 그것은 미구한 장래에 닥치게 되는 비운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나」하는 질문에 스스로 대답할 수 있는 확고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 남들이야 뭐라고 하건 나는 이것만은 양보할 수 없다는 확고한 좌표를 세워 놓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

때로는 대중의 미움을 사게될 경우도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의 인생목표에 비추어 보아서 하나도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일이라면 때로는 대중과 싸워서라도, 혹은 고독한 위치에 놓이게 될지라도 이것을 뚫고 나갈 기백이 있어야 한다.

바꿔 말하면 우리는 대중과 더불어 사는 사회적 동물 이기는 하지만 대중에 예속되지 말고 독립된 하나의 인격체로서 뚜렷한 목적에서 사는 사람이 되자는 것이다.

(전동 천주교회)



한 알의 사과

김 정 호

이 해도 저물어가는 12월. 거리에는 하나 둘 카드를 파는 집이 생기고 경쾌한 크리스마스 캐롤이 우리의 발걸음을 빠르게 해 준다. 어쩌다 주름살을 지니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대개는 즐거운 표정이다.

이 해가 다 가니 어쩔지 섭섭하고도 기쁘다. 이 해에 내가 해야 할 일을 다하지 못했음이 섭섭함의 원인이요, 새해에는 좋은 일을 많이 하자고 결심함이 기쁨의 원인이다.

우리의 주위에는 가난하고, 병들고, 죄 짓고, 마음이 깨끗하지 못해 불행한 사람들이 많다. 우리는 그들을 향해 그것은 너희가 게으르기 때문이요, 마음이 악하기 때문이요, 몸을 잘 간수하지 못한 때문이라 말할 수 있다. 그러기에 너희는 마땅한 벌을 받아야 한다고. 자칭 타칭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의 형제이다.

가족은 그 아버지가 선하면 대개 선하기 마련이요, 그 형이 용감하고 인정이 많으면 그 아우 또한 그렇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형제, 우리 또한 응당! 그래야 할 것이다.

해마다 연말이면 불행한 사람을 돕자는 운동이 일어난다. 많은 사람들이 이에 참가하고, 자기의 도울에 흐뭇해 할 사람을 생각하고, 자기도 흐뭇해 한다. 성당에서도 불쌍한 사람을 위해 기도를 하고 하느님의 은총이 그들에게 있기를 빈다. 그리고 직접 그들을 돕기도 한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세상의 불쌍한 사람은 늘어만 가는 것 같다.

이 늘어가는 불쌍한 사람을 줄이는 것이 그리스도 사랑의 정신이요, 그리스도 형제들의 사명이다. 이 시간중 우리는 자신의 이해(利害)에 너무나 악착하지 말고 불행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 어떨까? 친구들에게 카드를 보내는 것도 좋지만 불행하고 아들에게 사과 한 알이라도 보내는 것이 어떨까? 죄 짓고 뉘우치는 사람에게 한마디의 따뜻한 말을 해줌이 어떨까? 이웃의 가난한 사람을 찾아가 봄이 어떨까?

우리 모두 성탄절에 다만 한가지라도 불행한 이웃을 위해 일하여, 성스러운 사명을 다 합시다.

(한림 Cell 회원)

조흥(사자표)페인트 대리점 (집결 전문)

대동 페인트상사 } 고급벽지, 비닐장판, 하드보드, 각종페인트

● 동문 사거리 전화 5986 임정원 (도민고)

제일 비싼 독일의 3년 연속 V.A. 번식 성적 1위인 판토호의 직자

랙스 V 래토프



(입한전 애견)

문의처 : 전화 7692(진북동 어은골)

※ 최신행 드레스 및 신부확장 ※

결혼 미용실

교우 여러분께 반액 봉사

● 중앙성당 앞 전화 6794

이현주(메테사) 올림

◻ 양 지 쪽 ◻



참 흡 네 요

요사이는 석유 난로의 열기(熱氣)도 시원치 않다. 그뿐이 아니다. 연탄 난로도 그렇다. 아랍 사람들의 옷감에 맥을 못추는가 싶다.

성탄절 자기 미사를 참례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소복이 쌓인 눈길을 걸어서 집을 찾았던 날은 기분이 썩 좋았다. 그런가하면 미사가 끝나고 성당을 나섰을 때, 하늘은 높고 맑으며 환하게 비추어 주는 밝은 달만이 사위를 뱅뱅그레 비추던 날은 어찌던 그리도 어찌가 올라 갔던지, 어떻게 그리도 발걸음이 빨랐던지 모른다.

지금은 추운 때이다. 더우기 아랍의 옷감에 전세계가 한기를 느끼는 때이다. 이 오슬오슬한 한기를 이겨보자고 전기를 절약해라, 기름을 아껴 써라, 절객업소는 일찍 문을 닫아라, 심지어는 관공서나 학교에서도 오후 5시가 넘으면 관리실에만 불을 켜라고 한다. 다 좋은 말씀들이다. 지당한 말씀들이다. 어떻게든 절약해야지.

하지만 그런 일들이 가난한 서민네들에게는 그리 별스러운 일이 아닌것 같다. 배부르고 등다수운 일도 제대로 해결이 안되는 판에 텔레비전 연속극 재방송이 없다고 해서 불편할 일도 없고, 요정이나 클럽이 일찍 문을 닫아서 곤란한 일도 없다. 오직 연탄 값이나 오르지 않고 물가나 제자리를 지켜주었으면 하는 맘뿐일게다.

먹고 싶어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보지 않은 사람은 배고픔이 무엇인지 모른다. 쉰 것이 없어서 떨어 보지 않은 사람 역시 추위가 무엇인지 모른다. "식량이 없으면 고기나 사과를 먹어라"? (가난하다면서 왜 그리 오우버 쿠폰트를 사입느냐고 기를 쓰느냐?)

말세요. 히터가 설비되어 있는 자가용으로 출퇴근하고 외출하는 분네들의 사무실은 더워서 옷을 벗어야 할 지경이니, 어찌 파부의 설움을 알 수 있으리오?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정에 대한 해답은 간단하다. 그 실천이 어려워서 그렇지. 문제의 해답은 우리 사회에 사회정의(社會正義)가 지켜질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는 그것이다. 이 추위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저위에서 부터 말이다.

얼음이 박힌 손으로 공장에서 피나게 벌어들인 어린 딸의 정성이 주전머리없는 아빠의 술값으로나 손장난으로 없어질 때, 그 가정의 평화는 없어지는 것이다.

요심이

(22) 김병오



가톨릭 센터 프로그램 (교장 신부 박진량, 총무 안지은, 전화 3498)

- 17(월) 7시 반.....말씀의 광장 ("성탄절의 의의")
연사:장명수 교수, 박문근 목사, 유장훈 신부
- 18(화) 7시반.....성경교실
- 20(목) "지성인 교리
- 21(금) 8시.....레크레이션(주최:가톨릭센터와J.O.C)
- 외국 문화 교실
English Conversation.....월~금요일 7시 독어-Heideros.....화, 목요일 6시
Morgentau.....월, 수요일 6시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드나

* 성 바오로 서원 *
(전화 7398)

* 이 주간의 성경 *

- 17(월) 독서 (야고보 1: 2-8, 성서 P.520) 20(목) 독서 (야고보 1: 16-18, 성서 P.521)
- 복음 (마태오 1: 1-17, 성서 P. 1) 복음 (루 가 1: 26-38, 성서 P.122)
- 18(화) 독서 (야고보 1: 9-11, 성서 P.520) 21(금) 독서 (야고보 1: 19-25, 성서 P.521)
- 복음 (마태오 1: 18-24, 성서 P. 1) 복음 (루 가 1: 39-45, 성서 P.123)
- 19(수) 독서 (야고보 1: 12-15, 성서 P.520) 22(토) 독서 (야고보 1: 26-27, 성서 P.521)
- 복음 (루 가 1: 5-25, 성서 P.121) 복음 (루 가 1: 46-56, 성서 P.124)

일본어(日本語)교수

기초부터 회화·번역까지

<12월 1일 개강>

●전동1가 200의1 (전화 3222)

장복만(요셉)

고급찻집, 경쾌한음악, 냉온방시설

(신장개업)

새로운

남문다실

남문여관 지하실 직통 4881

교환 2169 5017

* 단 교우 월부 판매 *

동남샤프 { T V
병 장 고
석유스토브

●전주극장 동편 입구

전화 8121

여요셉(운창)

전주 시내 6개 본당 소식

- 1. 중·고등부 각 썸 (Cell) 지도자 및 의장모임 (다음 주일 오후 2시, 해성 학교 종교교실) 중·고등 학생 활동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시어 모두들 빠짐없이 참석 하시기 바랍니다. 한 자리에 머뭇머뭇 마주대고 중·고등부 가톨릭 학생 활동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 봅시다. -교구 교육분과 지도신부 문정현 드림
- 2. 사회분과 위원회 (21일 <금> 오후 7시반, 덕진 사제관) 19일까지 각 본당 사회부 연간 계획서를 사회 분과위원장 (덕진 사회부장)께 제출해 주십시오.
- 3. 메아리 합창단 (18일 <화> 오후 8시, 가톨릭센터) 6개 본당 젊은이들의 모임에 특별한 관심을 가집시다.
- 4. 전주 지구 부녀부 모임 ① 오늘 공식 미사후 11시반, 가톨릭센터-각 본당 부·차장의 참석 바람 ② 17일 오후 2시, 가톨릭 센터-「여성교실」(조용한 크리스마스 보내기)

[소]

[식]

(중앙)

전화 ②2651 주임 신부 안복진
②3874 사도 회장 이복석

- 1. 성모회 월례회 (오늘 공식 미사후)
- 2. 사도회 임원 피정 (오늘 저녁 미사후까지 신청)
- 2. 모르는 교우와 인사를 나눕시다
- 4. 교무금 신입은 성탄 전까지 끝냅니다
- 5. 판공성사를 보고 성탄을 즐겁게 지냅니다.
- 6. 20일에 병자성사 (19일까지 사무실에 신청)
- 7. 23일에 영세식 (오후 3시) 대부, 대모와 함께 2시반까지 모여 주십시오. □교무금 신입액 2,817,550원 (90%, 541세대) 지난 주일 봉헌금 38,150원, 감사합니다.

(복자)

전화 ②5238 주임 신부 오기순
사도 회장 조성호

- 1. 판공성사 (10~12시, 오후 2~5시, 저녁미사후) 20(목); 다가동 1~4가, 중앙동 1, 2가, 서완산동 21(금); 고사동1, 2가, 태평동 2가, 중화산동 22(토); 효자동, 진북동, 기타
- 2. 영세식 (24일 오후 3시, 유아 세례도 있음)
- 3. 꼬미시움 회합 (전동성당에서)
- 4. 팀회합 (월요일 저녁미사후, 성당에서) □지난 주일 성미 3말 2되 (누계 227말 2되) 지난 주일 봉헌금 13,170원, 감사합니다.

(노송동)

전화 ②7032 주임 신부 합승철
사도 회장 조해철

- 1. 사도회 임시 임원회 (오늘 10시미사후)
- 2. 부녀회 월례회 (오늘 10시미사후)
- 3. 아직 성사 못보신 분은 다음 날자에 22(토)-남노 23(일)-중노 1가 2가, 24(월)-인후 유아동 시간; 10~12, 오후 3~5시반, 8시~10시
- 4. 교무금을 자진해서 정성껏 신입하여 교구와 본당 운영에 의무를 다합니다. □지난 주일 신축 성미 5말 (누계 109말 5되) 지난 주일 봉헌금 15,840원, 감사합니다.

(서학동)

전화 ②2276 주임 신부 김영일
사도 회장 이거영

- 1. 미사 시간 변경 (평일 아침은 7시)
- 2. 교무금 신입이 180세대뿐입니다. 미 신입자는 빨리 신입해서 본당 살림을 도움시다.
- 3. 감사 드립니다. ① 많은 교우들이 판공성사를 보았습니다. ② 상관의 성년 행사도 잘 끝났습니다. (장사; 박진량 진부) ☆ 축 결혼 ☆ 19일(수); 이기탁군과 최정자양 20일(목); 문동주군과 이해숙양 ● 위령 미사 ● (18일 <화>) 10반 반장님 대에서 부군의 1주기 위령미사 □지난 주일 봉헌금 12,143원, 감사합니다.

(덕진)

전화 ②8082 주임 신부 김종택
사도 회장 김종환

- 1. 판공성사 미필자는 18일(화)에~하루뿐 시간; 10~12시, 오후 3시 이후 (미사 7시반)
- 2. 사랑의 선물 보내기 운동에 협조합니다. 백지 어린이들을 위해서 교리교사들이 매 주일 미사 전후에 구두담기로 성금을 모우고 있습니다.
- 3. 신용조합 월례회 (오늘 공식 미사후)
- 4. 사도회 임원회 (19일 <월> 오후 8시)
- 5. 학생회 성가 연습 (매주 수·목·금 오후 3시)
- 6. 받으신 설문서에 성의있게 응답합니다. □지난 주일 봉헌금 7,345원, 감사합니다.

(전동)

전화 ②3222 주임 신부 범석규
사도 회장 송재진

- 1. 꼬미시움 회합 (오늘 오후 1시반)
- 2. 성탄 성가 연습 (17일 <월> 오후 7시반)
- 3. 병자성사 (사무장에게 신청바람)
- 4. 가정방문 (누락된 가정은 사무장에게 신청 바람)
- 5. 성심 유치원 미전 (16~18일~유치원에서) □교무금 신입 현황 2,516,600원 (437세대) 부녀부 성미 10되와 500원 (누계 54,185원) 애령회 특별 헌금 5,955원 지난 주일 봉헌금 32,560원, 감사합니다.

□창간 1주년 기념행사□

퀴즈 놀이 (3)

■ 문제 ■

- 1. 그간 숲정이에는 「사제 양성 후원사업」에 대한 기사가 여러차례 실렸었습니다. (숲정이 제24호 또는 제25호 참조) ① 지금까지 예약된 기금의 총액은 얼마인가? ② 몇개 본당이나 참여했는가?

- ③ 제일 많이 예약된 본당은 어느 본당이며, 얼마인가?
- 2. 금년부터 시작된 성년을 기해서 우리 교구에도 6개의 순례성당이 지정되었습니다. (숲정이 제50호 참조) 어느 어느 성당인가?
- 3. 바람직한 숲정이를 위해서 한마디만 더 해주세요. ◆방법◆ (숲정이 제53호 참조)